10 머리말 정당으로 쳐들어가자!

2030 5060

조중동의 수구성을 은폐하지 말라
'세대 갈등' 선동을 경계한다
'대통령 만들기'와 '대통령 죽이기' / 김호기 · 정갑영 · 장달중 · 권영빈의 주장/ 매체 이용 행태가 중요하다/ 인공기는 '엄청난 혼란'을 낳았는가?/ '또 하나의 금기 깨졌다' / 조중동의 영향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?/ 조중동을 끊어야 세상이 보인다

21

35

엘리트 중심의 '화합'을 경계한다
노무현은 김대중의 전철을 밟지 말라
누구를 위한 '화합'인가?/「경남대 교수 이수훈의 해괴한 서평」/ 호남편중 인사의 비극/ '한 전라도 사람의 세상 읽기' / 영남인들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가?/ 호남의 문제였나, 한국의 문제였나?/ '부패 사회에 사는 슬픔' /「호남 지역주의 논쟁」/ '주류'에 대해 겁먹지 말라

55

폴리페서가 욕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
교수의 정치 참여 실명제
「교수의 정치 참여 실명제」/ 정치 참여의 '양지화(陽地化)' / 교수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성명/ 실명 비판의 문화가 필요하다

실명비판 정치참여 폴리페서 책임

호남 몰표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정당한가

노무현 생각/**고종석**

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만으로/ 문화적 소수파의 '코리안 드림'/ '프리 핸드'를 주자/ 지역주의에 표를 던질 수는 없다/ 그들은 건강하다

69

83

'중앙 중심주의'를 깨야 한다

'서울 공화국'이 지역감정의 주범이다

"지방 살면 뒤떨어진다" 80.5%/ 소설가 복거일의 '변절'/ '서울 공화국'이 지역감정을 만든다/ 여론 형성 구조가 문제다/ 자존심 회복이 필요하다

93

"서울의 음모를 깨라"

수많은 '김두관'을 기대한다

지방 스스로 유난을 떨어야 한다/ 지방 공무원의 자질론/ 지방공무원과 지방대 교수/ '1할7푼 자치'를 깨야 한다/ 대(對) 언론 투쟁이 필요하다/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

107

임영철의 『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!』

'회식 문화' '조폭 문화'가 정부 망친다

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자?/ '무지'보다는 '탐욕'이 더 문제다/ 거시적 · 총체적 시각도 필요하다/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한국 언론/ '판공비는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'/ '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 관료'

125

조중동, 이대로 둘 건가?

조중동의 '신문 죽이기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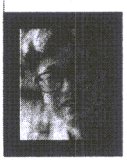
조중동 비판에 대한 고민/「조중동을 비판만 할 건가?」/「4백만 부 신문을 만들자」/「조중동에 맞서 싸워라」/ '신문이 무서워요'/「보수언론에 멱살 잡힌 나라」

139

정치적 글쓰기의 윤리

복거일의 '병풍(兵風) 손익계산서'를 검증한다

정치 칼럼의 윤리/ 복거일의 '병풍(兵風)의 손익계산서'/ 복거일의 '오버'에 대한 반론/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/ '참된 지도자 감별법'?



'수치심' 은 어디로 갔나?

패거리주의가 수치심을 죽인다

「철새-진드기-바퀴벌레」/ 『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』/ '수치심 문화' 와 '죄의식 문화' / '수치심' 은 어디로 갔나?/ '한승수 의원의 경우' / '한승수 의원의 발 빠른 처신' / 지역구 주민들과의 암묵적 공모/ '줄서기' 는 생존 전략이다/ '철새 정치인들' 은 한국 사회의 거울

153

171

'개혁 상업주의론' 에 대해

김진석의 비판에 답한다①

'간접 상업주의' '기생 상업주의' 를 끝장내자/ 김진석의 기우(杞憂)/ 추상의 계단에서 한 걸음만 더 내려가자/ 김진석의 조급함과 강박/ 「MBC 〈느낌표〉 논쟁」/ 우리는 정녕 개혁을 원하는가?

185

'이론' 과 '행태' 의 괴리에 대해

김진석의 비판에 답한다②

'부드러운 파시즘' 에 대한 오해/ 강준만의 '관점의 변화' ?/ 「'박정희 미화' 의 확대재생산 구조」/ '중간' 은 없는가?/ 「제3세계에서의 파시즘」/ 파시즘 개념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하자/ '이론' 에 집착하지 말자

203

미국에 대한 몇 가지 신화

하워드 진의 『오만한 제국』

무지한 미국인들의 호전성/ '9·11 테러 상업주의'/ '객관성'과 '중립성'/ 마키아벨리를 욕하면서 써먹기/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다른가?/ 미국은 과연 '법치국가'인가?/ 『조선일보』가 부추기는 '집단적 광기'

217

'개인적 경험'의 가능성과 한계

로버트 카플란의 『무정부시대가 오는가』

아프리카의 참상은 인류 문명의 예고편/ 민주주의는 위험하다?/ 홉스의 복권/ 도덕주의와 현실주의/ 과유불급(過猶不及)

229

홍윤기의 '문명의 경계' ②

인간과 동물은 평등한가/홍윤기

2034년, 적도행 열차의 객실/ 동물은 '차별' 당하고 있는가?/ 인간 평등권의 윤리적 원리로서의 '고통지각 능력'/ 평등권의 인간중심적 이해에 대한 종차별주의 규정의 충격/ '벗으면서 해방하자!'/ 잊혀진 문명의 기저

문제는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다

미당 서정주에 대한 극단주의

고창 미당 문학제 취소 사건/ '미당 상가에 문상객이 별로 없었다'/ 유종호와 문정희의 미당 예찬/ 탁석산의 불성실한 백낙청 비판/ 탁석산의 수학적 분식/ 김주연과 정현종의 미당 예찬/ 미당 문제도 문학권력 문제다

261

27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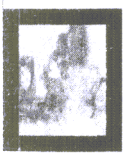
주고받는 비판 속에 멍랑 사회 아욱된다

상대가 승복하지 않으면 잘못된 비판인가?

'문학권력' 논쟁에 대한 오해/ '생산성'에 대한 과도한 집착/ '문학권력'과 '북한 문학'은 별개의 문제다/ '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?'/ 자기 성찰의 오용

285

영화계 긴동은 한국 민주화 진동의 축소판

영화진흥법 갈등 15년/김학수

UIP직배저지 투쟁과 평민 · 민주 공동 영화진흥법안/ 3당합당으로 좌절된 영진법과 김영삼 정권의 탄생/『서울신문』, 신한국당,『조선일보』의 핑퐁게임/ 영화계 보수 인사들의 '슬픈 우스갯짓'/ 조희문의 적반하장과 위험한 시도/ 공진협의 출범과 정권교체/ 공진협 사수를 위해 반기의 신호를 올린『조선일보』/ 영화진흥위원회 출범의 두 가지 '치명적인 실수'/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기적 구성과 출범/ '5년 가까이 제도 마련을 지연시켜온 원인 제공자들'/ 제한상영관과 영등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?/ '음란의 적' 5인방에 왜 신문사가 없는가?